

제31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영 안전관리자



더도 덜도 말고 처음만 같아라

숨 막힐듯한 무더위도 저만치 물러나고 길가가로수도, 들녘 코스모스도 어느새 가을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며 내려간 대전에는 안전의 향긋한 내음을 담뿍 머금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21세기 세계 최고의 ITR&D 기관 실현을 목표로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디지털홈, 지능형 로봇 등을 연구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는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자 항상 정진하는 김재영 안전관리자가 있다.

1993년도부터 12년간량 실험실 안전을 담당해 온 그는 오랜 안전업무로 전문적인 안전관리는 가능해졌지만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실험실 안전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한걸음 앞서 걷는다. 연구단지내 안전협의회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하고, 현재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안전공학 석사과정에 있어 지식 습득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배움으로써 이러한 마음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 **기본을 충실히 한 바탕위에 실험실 안전기를 마련**

연구원내 스마일맨으로 통하는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정리정돈, 안전수칙 준수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높이 솟은 탑도 무너지듯 안전에서도 기본에 주를 두고 유해가스 및 약품 저장실, 이러한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등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연구원내 3개소에 설치된 중앙감시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어 비상시 바로 출동·조치토록 하였고,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험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제도도 실시하여 월 1회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재영 안전관리자는 손수 연구원 실정에 맞는 실험실 안전편람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 내부망과 연계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이 연구단지 최초의 업적이라는 점에서 연구단지 전체의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그의 노력은 더욱 돋보인다.

내년 석사논문 발표와 실험실 안전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코자 더욱 연구한다는 그는 연구원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도움을 받은 대전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항상 노력하고 정진하는 안전인으로 남을 것을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성호연기자〉